



비움나눔페스티벌에서 만나는 윤중호 작가의 작품은 옛 광주 가톨릭대학교 기숙사동의 공동 세면장에 설치됐다.

# 세월의 흔적... 그리운 것들에 대한 여정

지난 2017년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옛 광주가톨릭대학) 브레디관(기숙사동)에서 처음 열린 '비움 나눔 페스티벌'은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 미술전시에서 소개된 작품들은 1962년부터 광주가톨릭대 건물로 사용된 근대문화유산 건물과 어우러져 깊은 인상을 줬다. 기숙사 방 한칸 한칸을 전시공간으로 제공받은 작가들은 개성을 유감 없이 발휘했고, 그 기운은 관람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특히 헨리관 지하공간은 그 어디에도 없는 독특함으로 눈길을 끌었고, 작가들을 자극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가 주최하는 제5회 비움 나눔 페스티벌이 오는 13일까지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일원에서 열린다.

'그리운 것들-행복을 이루는 여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미술전시와 작가와의 대화, 공연, 플리마켓

비움 나눔페스티벌, 13일까지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일원 35명 작가 전시...정태훈·박은옥 공연, 플리마켓, 작가와의대화 등

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중 공연 등의 행사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 규모를 축소했다.

소빈 작가가 예술감독을 맡은 이번 행사의 중심은 미술전시다. 35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는 기숙사 방 하나 하나가 개별 전시실로 변모했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전시 공간을 적절히 활용한 작가들의 작품은 흥미롭다. 과거 행사 때 설치됐던 작품에 또 다른 작품이 더해지면서 시간의 흐름도 담았다.

윤중호 작가는 공동세면장에 인공정원을 꾸몄고, 도자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는 오인호 작가는 화장실에 작품을 설치했다. 또 엄마의 재봉틀을 오브제로 쓰기도 하고(최순임), 바다에 버려진 낚시용품이 작품의 소재(김택신)가 됐다. 올해는 처음으로 해외작가 3명도 참여했다. 나뭇잎으로 작업하는 스위스의 앤 슈투더, 일본의 토시히코 오쿠라, 중국의 린민 작가다.

헨리관 지하를 활용한 이정록 작가는 산타이고 순례길을 담은 사진 작품과 신작 영상 'water'를 함께 선보이며 최미애 작가도 작업물을 공개했다.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작품 제작 워크숍도 진행하는 행사도 열린다. 5일에는 앤 슈투더(나뭇잎), 김희주(유리공예), 박종진(건축) 작가가 행사를 진행하며 6일에는 전체 작품에 대한 도슨트 해설과 고재희(도자기) 작가의 대화가 열린다. 12일에는 최루시아, 장형순 작가가 참여한다.

또 헨리관 '갤러리 현'에서는 김양희 신부의 사진전이 열린다. 오랫동안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을 카메라에 담아온 김 신부는 '바다'를 주제로 작품을 선보인다.

5일(오후 5시) 대건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개막

공연은 나눔콘서트로 진행된다. 발달장애인 클라리넷 앙상블 '파라솔 클라리넷 합주단'과 인형극이 펼쳐지며 정태훈·박은옥의 공연 등을 통해 추모와 위로의 시가 될 것이다.

버스킹 공연은 12일(평송, 버블드래곤, 변검), 13일(조이밴드, 바다퍼커션 이상호, 금관오중주 피아트, 색소폰 임은규) 두 차례 열린다. 12일 대건문화관에서는 국악성이 한소리합창단 공연과 국악한마당 행사가 펼쳐지며 13일(오후 5시)에는 피아트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린다. 그밖에 작가들의 작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플리마켓도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엄마의 재봉틀을 오브제로 사용한 최순임 작가의 작품.



예술팀동조합의 전시 '세상 속의 나를 마주보다'(일부)

## 예술팀동조합 연계 전시 '세상 속의 나를 마주보다'

비움나눔페스티벌과 연계한 '또 하나의 전시' 헨리관 지하에서 열린다. 1~3회까지 페스티벌 예술감독을 역임한 오창록 작가와 미디어 아티스트 박상화 작가를 포함한 예술팀동조합이 주관한 체험형 설치작품 '세상 속의 나를 마주보다'다.

오래된 시골집 마룻바닥을 깔아 만든 길을 걷는다. 붉은 조화로 장식된 그 길을 따라 낙엽이 지고, 꽃이 피는 미디어아트 작품을 지난다. 창호문을 밀고 들어서면 누군가의 오래된 인생을 이야기하는 듯한 소품이 기다

리고 있다. 낡은 축음기와 영사기, 사진기, 한지로 만든 인형 등이다.

박상화 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은 불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의 풍광을 만들어내고, 바다를 소재로 한 작품에서는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듣는다.

인생의 여정을 따라가듯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면 포토존이 나오고, 자신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코너가 기다리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정용규 작 누드크로키

## 순간의 움직임 '누드 크로키' 전

토요일에 만나는 사람들, 15일까지 금봉미술관

순간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크로키 작업은 작가들에게 기본으로 꼽힌다. 특히 인간 신체의 움직임과 근육의 변화 등을 재빠르게 묘사하는 누드 크로키는 민첩함과 더불어 자연스러운 선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

1993년 4월 창립된 누드 크로키회 '토요일에 만나는 사람들(토만사)'은 광주에서 처음으로 누드크로키 전시회를 연 그룹이다. 빛고을갤러리에서 김경애 작가 등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첫 전시를 열었고 매년 회원전과 초대전을 이어오고 있다.

토만사는 모임 이름 그대로 매주 토요일 모여 전문 모델과 함께 크로키 작업을 한다. 회원들은 '선(線)'을 탐구하는 예술 누드크로키는 선에 대한 몰입도가 강하게 작동하는 시각적, 감성적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토요일에 만나는 사람들'(회장 정용규) 31회 회원전이 오는 15일까지 금봉미술관(광주 각화대로 91)에서 열린다.

올해는 명예회원 이우진, 고문 이근표 작가를 비롯해 황영성·오영란·김재현·최재봉·황경숙·박인주·신선화·정편남·김승화·박문수·김미영·이은희 작가 등 25명이 작품을 선보인다.

같은 모델을 앞에 두고 작업을 하지만 작가들이 표현해낸 포즈는 개성이 넘친다. 여성과 남성 누드 모델의 다양한 포즈와 움직임을 담아 낸 작품들은 역동적이고 리드미컬하다. 붓과 연필이라는 아주 단순한 도구를 사용하지만 화면 위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아버지합창단 공연모습.

## 광주아버지합창단 '일어나 걸어라'

정기연주회, 7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제30회 광주아버지합창단 정기연주회 '일어나 걸어라'가 7일 오후 7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공연에는 광주아버지합창단과 국민대 예술대학 음악학부에 재학 중인 김수아씨와 광주예술고 2학년 김혜윤, 이민교씨가 함께한다.

광주아버지합창단의 윤원중 지휘자와 윤원주 반주자의 협연으로 진행되는 공연은 '두손을 모아', '소상공인을 위한 노래', '세계의 민요', '대중 음악' 등 4개 섹션으로 나뉜다.

이날 선보이는 곡은 '일어나 걸어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부터 루이스의 '중화반점', 인도네시아 민요 '침밀밀', 나훈아의 '테스형!',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등 다채롭다. 소프라노 김수아의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깊은 침묵은 밤을 덮는다', 피아니스트 이민교의 베토벤의 '소나타 23번 열정 3악장', 소프라노 김혜윤의 헨델 '내게 돌아와 주오' 등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아버지합창단은 1998년 3월 음악을 좋아하는 '아버지'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40여명의 인원으로 직군은 의사, 교수, 회사원 등 다양하다. 이들은 지역 의료시설과 청소년 보호시설 등을 찾아 희망의 노래를 전달하며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김미은 기자 kdi@kwangju.co.kr

#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Since 1982

#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